

언어구분 KOR

논문구분 원저/구연

논문분야 고관절

논문제목 큰 대퇴 골두의 사용이 일차성 고관절 전치환술 후 탈구에 미치는 영향

영문제목 **The Effect of Big Femoral Head on Postoperative Dislocation after Primary Total Hip Arthroplasty**

발 표 자 여지현

책임저자 윤강섭

저 자 윤필환*, 여지현**, 김동옥***, 유정준**, 김희중**, 윤강섭

기 관 명 *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정형외과학 교실, **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학 교실, ***전주 고려병원

서론 : 큰 대퇴 골두(36mm)의 사용이 일차성 고관절 전치환술 후 탈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통 크기(28mm)의 대퇴 골두를 사용한 군과 후향적으로 비교하여 유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.

재료 및 방법 : 큰 대퇴 골두(36mm)의 사용이 일차성 고관절 전치환술 후 탈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통 크기(28mm)의 대퇴 골두를 사용한 군과 후향적으로 비교하여 유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.

결과 : 최종 추시 시까지 28mm군 총 267례 중 9례(3.37%)에서 탈구가 발생하였으며, 89례의 36mm군에서는 1례도 탈구가 발생하지 않았다. 수술 후 탈구가 발생한 기간은 평균 42.7일 (16~170일)이었으며, 7례에서 심한 굴곡이나 가부좌와 같은 과도한 굴곡, 외회전 등의 운동 범위에서 발생하였다. 1례는 충돌 현상 (impingement)으로, 1례는 우울증 환자로서 그 원인이 불명하였다. 탈구된 9례의 비구 컵 경사각은 평균 43.40 (35.5~49.10), 전염각은 평균 15.20 (4.3~24.60)이었다.

결론 : 큰 대퇴 골두를 사용한 일차성 고관절 전치환술은 28mm의 보통 대퇴 골두를 사용한 경우보다 의미있는 술 후 탈구의 감소를 보여 주었다. 대퇴 골두를 사용한 고관절 전치환술의 경우 술 후 8주 이내에 대부분의 탈구가 발생하였고(88.9%), 심한 굴곡이나 외회전 등의 과도한 운동이 주 원인으로 나타나(77.8%) 술 후 3개월까지 과도한 운동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.

acknowledgment :

큰 대퇴 골두, 고관절 탈구, 일차성 고관절 전치환술